

사진으로 보는 수성문화제 이모저모

제29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성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민들은 3일간 이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간 진행된 행사의 이모저모를 화보로 살펴보았다. **〈사진 박승근 기자·백옥식 시민기자〉**



23일 오전 9시 가장행렬에 선두에 선 고적대의 모습.



22일 오전 11시 거행된 수성제례.



민속체육경기로 열린 씨름.

음면 가장행렬



현내면



농협고성군지부와 농가주부모임이 공동 주최한 고성오대미떡 시식행사.



거진읍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한

22일 열린 '웰빙노래세상'에서 토성면 도원리 배은주씨(44세, 사진)가 대상을 차지했다. 배씨는 '우리 돌이'를 불러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금상에는 '꽃잎 사랑'을 부른 죽왕면 이군섭씨가 차지했다. 또 은상은 '비상'을 부른 거진송포리에 신철씨가 동상은 '자기야'를 부른 간성읍에 황서연씨에게 돌아갔다.



올해 처음 선보인 고성문학회의 시화전시회 모습.



참전유공자회 고성지부에서는 주처안내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

거진읍과 현내면의 줄다리기 경기 모습. 사진은 거진읍 주민들이 안간힘을 쓰는 모습. 경기 결과 거진읍이 승리했다.